

#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몫을 다하자



신 덕 현  
홍원목장



앞으로 닥칠 낙농의 제반여건은 정부의 역할축소와 함께 우리의 몫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커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몫(비싸지 않고 품질 좋은 우유를 국민 모두가 마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과실의 몫 또한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 ① 생산성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품질개선은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③ 소비자 홍보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 1. 한 천년을 보내고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금년이 새천년의 시작이라 했으니, 서기 100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한 천년으로 불러도 될 것이다. 말이 천년이지 그 중에 산업으로서 낙농이 갖는 역사는 겨우 30여년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2/3쯤 되는 기간동안 낙농을 천직으로 삼고 지내온 사람으로서 새천년을 맞는 감회가 클 수 밖에 없다.

한 때 최고 4만5천에 가깝던 농가수가 이제 1만5천도 남지 않았으니 생존율이 1/3도 안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나 물러난 사람이나, 서로 경쟁을 해 이기고 졌다는 생각을 갖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둔 농가의 대부분은 낙농에서 수지를 맞추지 못한 탓일 것이다.

반면 젖소 한마리, 땅 몇 백평으로 시작해 지금은 백마리도 넘는 젖소와 수만평의 땅을 보유해 준채벌(?)소리를 듣는 낙농가의 얘기는 이제는 더이상 입지전(立志傳)적이지 않다. 그만큼 낙농이 고도의 지식기반산업이란 얘기가 될 것이다. 그 뿐아니라 그런 농가의 대부분은 다른 동료 농가에게 그것을 알리는 데 전혀 인

색지 않았으니, 낙농 말고 이렇게 멋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내노라하는 농가들조차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환율급등으로 인한 사료값의 폭등도 문제였으나, 그동안 어느 정도는 준수식(準主食)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던 우유의 위치가 사상누각(砂上樓閣)이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경제가 회복되면서 우유소비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오래만에 해 묶은 '집유선 쟁탈'이란 용어가 지 등장하게 되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원유생산이 주춤한 탓도 있으나 오래전부터 별려 오던 자조금제도가 햇빛을 보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하튼,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비교적 활기찬 마음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여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 2. 새 천년의 전망

내일 일어날 일도 제대로 예측 못하는 필자로서 새 천년에 닥칠 일을 예견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필자의 전망은 다분히 "이렇게 되었으면"하는 희망일 수

밖에 없다.

## 2010년 한국의 낙농상황

① 국민소득 : 8천불 → 2만불  
현재의 경제회복 속도나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볼 때 10년 뒤 선진국 수준인 2만불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② 국민 1인당 우유소비량 : 50kg → 100kg  
100kg중 75kg은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25kg은 수입으로 보충하되 국내산은 거의 시유나 유산균음료 등 음용유원료로 사용하고 수입유제품은 치즈나 가공용분유 등 국내산이 경쟁력을 상실한 제품이 될 것이다.

③ 낙농가 호수 : 1만5천호 → 8천호  
10년전 3만6천호이던 젖소사육농가가 60%나 줄어든 것을 볼 때 그리고 2세대체를 갖추지 못한 노령사업주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며 점점 심해지는 규모화의 압력때문에 기성농가는 지금의 1/3정도로 주는 대신 3천명정도의 젊고 능력있는 신규농가가 낙농계에 편입될 것이다.

④ 경산우 두수 : 30만두 → 40만두  
IMF체제이후 다소 줄어들었던 젖소숫자는 경제성장에 따른 우유소비 증가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40만두까지 늘어날 것이다.

⑤ 호당평균 경산우사육두수 :

20두 → 50두  
과거 10년간(8두 → 20두)이 그랬듯이 앞으로도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일 부분이다. 전체적인 젖소두수의 완만한 증가와 큰 폭의 사육농가수 감소로 인한 자연스런 결과이다.

⑥ 경산우 두당 연평균 산유량 : 6천kg → 9천kg  
지난 10년동안 1,000kg도 채 못올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10년간 세배이상의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어느 항목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이미 10,000kg을 넘어선 목장이 있고, 등록이나 검정을 통한 증축개량과 사양관리 개선으로 매년 500kg이상의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목장이 적지 않음을 볼 때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앞으로 10년후까지 살아남아 있을 정예농가의 수준으로 볼 때 더욱 그렇다. 열악

한 환경의 이스라엘이 이미 오래전 돌파한 기록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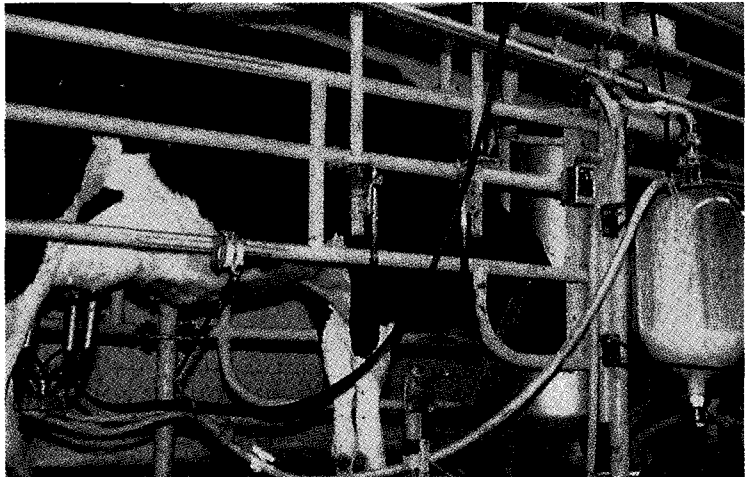
⑦ 호당낙농소득 : 3천만원 → 1억2천만원(10만불)  
경산우50두에 두당 산유량 9천kg이면 지금의 물가수준으로도 가능한 수치이니 10년후의 목표로는 무난할 것이다. 물론 가족낙농일 경우이다.

## 3. 새 천년의 과제

지난 10년간의 실적을 볼 때 앞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경제가 별 문제 없을 때도 우리의 잘못으로 우유 소비를 위축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이제는 모든 유제품이 개방되어 있고, 관세마저 계속 하향조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문제 없다고 여겨왔던 음용유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10년후의 우리낙농은 지금보



다 훨씬 정예화된 소수농가에 의해서 유지될 것이고, 유업체를 비롯한 모든 낙농 당사자 역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달성 가능성에 대해 비판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각 낙농당사자들이 제몫만 다 해준다면 초과달성도 가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낙농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오며 있어, 정부의 역할은 가끔은 부정적일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낙농의 제반여건은 정부의 역할축소와 함께 우리의 몫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커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의 몫(비싸지 않고 품질 좋은 우유를 국민

모두가 마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과실의 몫 또한 커질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① 생산성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우리나라젖소의 유전적 산유능력은 8,000kg이상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부족한 농가들은 자신의 여건만 탓하지 말고, 사양기술수준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같은 사양환경 아래에서도 7,000kg생산우와 15,000kg 생산우가 공존하는 것을 볼 때 종축개량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종축개량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전천후 품평회장의 건립에 농가의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② 품질개선은 모두를 위한 길이

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몇 사람의 실수로 농가가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수입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이것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③ 소비자 홍보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자조금제도가 이미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도 지난해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아직도 「우리」보다는 「나」를 더 우선하는 소수의 농가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아울러 법제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339-352-5163)

##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우리협회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과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지만 협회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비납부를 통한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도 호당 협회비 3만원을 조기에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社團 法人 韓國酪農肉牛協會